DOP, 10월 가격 약보합세 전환!

9월에 비해 톤당 30달러 하락 … 9월 수요증가 기대했으나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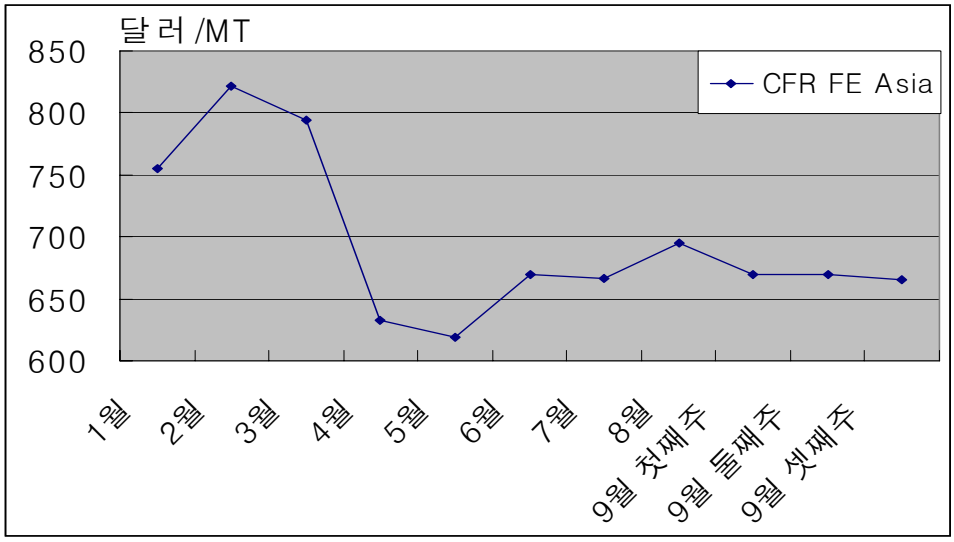
성수기를 맞은 DOP(Dioctyl Phthalate) 가소제 시장이 국내경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비수기였던 7-8월에 비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DOP 생산기업 관계자는 "최근 DOP 국내시장은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클이 역사이클 현상을 보여 비수기였던 여름에 비해 성수기인 9월 수요가 줄어 DOP 가격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9월의 이상현상은 10월에도 이어져 특별한 수요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여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동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DOP는 세계적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는 제품으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시장 역시 수요량이 18만톤인 반면 공급가능물량이 78만톤을 상회해 공급과잉 상태이며, 또 DOP가 액상체로 수출입이 용이치 않다는 점도 수입제품이 국내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DOP 가격추이(2003)



DOP 국제가격은 CFR Asia 1월 톤당 755달러, 2월 822달러로 상승한 이후 3월 794달러, 4월 633달러, 5월 619달러로 하락했고 6월 670달러로 상승한 후 7월 666달러로 소폭 하락했으며 8월 695달러로 상승했으나 9월 평균 665달러로 전월 대비 30달러나 하락했는데, 9월 DOP 가격은 첫째주와 둘째주 670달러로 동결된 이후 셋째주에 665달러로 5달러 하락했다.

국내 DOP 내수가격은 국제가격과 많게는 150달러 이상 차이가 나지만, 구매기업들이 영세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격구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LG화학 및 한화석유화학의 자가소비 및 계열사 소비용을 제외하면 바닥재용으로 소비하는 KCC 및 접착제용으로 사용하는 보광, 서일, 홍성화학 등의 외에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가소제는 PVC에 들어가는 양이 가장 많고 일부가 도료용과 접착제용으로 사용되는데, DOP 사용량은 첨가비율로는 접착제용이 가장 많고 PVC 그리고 도료용 순이다.

DOP는 가장 범용적인 가소제로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가소제 사용량 중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용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여 합성피혁, 시트, 전선, 벽지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0/01>